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박아청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자아정체감검사들을 기본으로 하여 종래의 자아정체감검사들이 갖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다차원적이고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자아정체감검사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종래의 정체감검사를 3가지 유형(지위분류형, 구성요인형 및 발달단계형)으로 분류하여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4가지 검사들의 문항을 서울,부산,대구 및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녀구성비율이 비슷하게 표집하여 실시한 검사결과를 요인분석하여 125개의 예비검사를 제작하고, 이를 다시 앞의 4개 도시의 각기 다른 중2년생,고등학생 2년생 및 전학년의 대학생 3,9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8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것으로 판정된 6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개발된 검사는 정체감의 다면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발달단계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연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를 유형별 자아정체감검사들간의 상관관계적 측면에서 논의한 후,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Erikson(1968)에 의하면 아이덴티티란 “개인의 영속성,단일성 또는 독자성,불변성이고,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 (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이며,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p.168)을 말한다. 이처럼 Erikson은 정체감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현상학적인 주관적 의식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자아개념의 통합성,안정감,명확성 및 그에 관련된 감정들을 자아정체감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과거 20여년간 많은 학자들은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 나름으로 정체감을 측정하였다 (Marcia,et.al.,1993). 그런데 이 정체감에 대해서는 Erikson 자신도 정확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조작적 정의가 다르게 됨에 따라 그 측정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Erikson이 제창한 이 개념이 종래의 심리학에서 논의하고 있던 ‘자기(self)’의 개념이나 정신분석론에서 사용하고 있던 ‘자아(ego)’의 개념의 일부를 포함하면서,한편으로는 이들 개념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가에 따라 거기에서 강조되는 측

* 이 논문은 199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면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박아청, 1994).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된 정체감 측정 방법으로는 Dignan(1965)이 개발한 척도이다. 그는 Erikson의 저서와 그때까지의 자아정체감 내용을 검토한 후 그 하위영역으로서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 등 7개를 설정하였다. 1974년에 백선옥이 Dignan의 정체감 검사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한 바가 있으나 이 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 서봉연(1975)에 의해 발표된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체감을 측정한 연구를 시발로 정체감 연구가 학계에 본격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서봉연은 Dignan이 만든 자아정체감검사를 번역하여 342명에게 예비실험한 후 62문항을 선택하고 2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는 Dignan 검사에 없던 '자기주장'이라는 하위영역을 새로 설정하여 총 8개 영역에 64문항을 배정,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그 후 주로 학위논문으로 보고된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남덕자, 1975; 박선기, 1977; 정인숙, 1979; 서봉연, 1981, 1988; 조수연, 1982; 김영복, 1983; 윤봉숙, 1984; 심계진, 1985; 김영선, 1986; 신태수, 1986; 박준수, 1987; 이정란, 1987; 전광주, 1987; 조성덕, 1987; 김형태, 1989; 권순명, 1993)은 그 측정방법이 앞서 서봉연이 개발한 Dignan검사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에 따라서는 Dignan이 제시한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을 몇 개 바꾸거나 또는 다른 영역을 추가한 것이었다.

한편,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Erikson의 개체의 점성적 발달-분화의 원리에 기초하여 유아기부터 여러 가지 체험이 재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특히 청소년기 이전의 각 발달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잘 해결해 낸 것에 대한 결실로서의 발달적 성취산물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정체감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제시되었다. 예컨대, Rasmussen(1964)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최초 6단계 즉, 유아기부터 성인초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했는가에 의해 정체감을 판단하는 자아정체감검사(Ego Identity Scale: EIS)를 작성하였다. 그의 자아정체감검사는 Erikson의 단계별로 3개의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각 하위영역별로 4문항씩을 작성하여 총 74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방법은 '예', '아니오'로 되어 있고, 각 발달단계의 득점 및 총득점이 산출된다.

이에 비해 Rosenthal 등(1981)은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최초 6단계의 발달양상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진술식 질문지를 각 단계별로 '위기의 성공적 해결' 6문항, '미해결' 6문항씩 12개 문항을 배정하여 총 72개 문항으로 된 'Erikson Psychosocial Stage Inventory(EPSI)'를 제작하였다. 이 질문지를 번역하여 박아청(1985)은 한국과 일본대학생의 정체감을 측정 비교한 바가 있으며, 이 질문지를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한상철(1986)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김형태(1989)는 Rasmussen과 Rosenthal 등의 EPSI를 기초로 하여 발달단계형 질문지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Erikson의 8단계 중 처음 5단계를 포함하여 각 단계마다 15개 문항씩 배정, 총 75문항으로 된 검사를 제작하여 실시한 바 있다.

자아정체감을 면접법으로 연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아마도 이 방법의 연구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사람은 Marcia(1966)이다. 그 이전까지는 정체감 발달의 양극면을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와 '혼미(Diffusion)'를 설정하고 주로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Marcia는 역할의 시도와 의사결정 기간이라고 하는 '위기의 유무'와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의 유무'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성취 정도를 '자아정체감 성취', '유예(Moratorium)', '조기완료(또는 폐쇄, Foreclosure)', '혼미(Diffusion)'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체현 등(1982)과 양병한

등(1983)과 김진우(1984)가 Marcia의 면접법을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Marcia가 제시한 ‘정치 사상적 영역’ 대신에 ‘가치관’을 설정하여 정체감의 정도(지위)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은 질문 지법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접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평정자간의 신뢰도에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dams와 Shea 그리고 Fitch(1979)에 의해 최초로 제작된 것이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OMEIS)검사이다. 이것은 Marcia의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 ‘정치’, ‘종교’ 영역에 관한 위기와 관여를 살펴보는 24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 후 Erikson의 저서 및 Grotevant(1982) 등의 연구를 통해 자아정체감의 영역을 ‘관념적 영역’과 ‘대인관계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관념적 영역에는 ‘직업’, ‘정치’, ‘종교’ 및 ‘철학적 생활방식’을 대인관계적 영역에는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및 ‘여가활동’ 등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8영역의 64항목으로 이루어진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1(EOMEIS-1)이 Grotevant와 Adams에 의해 1984년에 제작되었으며, Adams와 Bennion(1986)은 이에 대인관계 영역의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EOMEIS-2를 제작하였다. 그간 발표된 연구들(김순화, 1983; 박영신, 1983; 이정숙, 1983; 배제현, 1984; 박아청, 1985; 차영희, 1987; 김형태, 1989; 박승윤, 1990; 이승국, 1995)은 EOMEIS-1에 의한 연구라 볼 수 있고, 최근에 발표된 송설희(1994)의 연구는 EOMEIS-2를 우리나라의 문화와 감성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검사들이 본래 자아정체감이 지니고 있는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적 특성을 충분히 표현 내지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정체감검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체감의 어느 일부 특정 영역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Marcia도 이 문제를 언급한 그의 논문(1993)에서 그는 자신이 개발한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자아정체감검사들이 자아정체감의 특정한 단면만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아정체감의 다면적인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검사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최근, 서봉연(1975)이 개발한 자아정체감검사와 다른 2가지 검사를 비교분석한 장휘숙(1995)의 연구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3가지 자아정체감검사들은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상이한 개인의 특징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아정체감검사들이 각기 다른 어느 단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철학적이며 삶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기개념적인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p.183)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Erikson의 심리발달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정체감검사는 개인의 정체감 상태를 정체감 성취, 폐쇄, 유예 그리고 혼미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 구별이 분명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정체감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학적인 주관적 의식경험을 중요시하여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제작된 검사는 정체감 폐쇄와 유예보다는 정체감 성취와 혼미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사에 따라 정체감 상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Rasmussen(1964) 등이 최초로 제작한 발달단계형검사(김형태, 1989)는 Erikson의 발달단계 중 초기 5단계의 발달양상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감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기는 정체감 성취를 위한 중요한 과도기이며 8개의

발달단계가 궁극적으로 정체감 성취의 과정이라는 Erikson(1968)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이 유형의 검사도 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문제, 즉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체감에 대한 많은 연구 가운데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논의한 연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예컨대, 서봉연(1975), 신태수(1986), 김형태(1989), 권순명(1993), 및 송설희(1994)만이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타당도에 대해서는 김형태(1989)가 두가지 종류의 정체감 검사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과 Dignan의 척도를 기초로 제작된 서봉연(1975)의 척도를 중심으로 다른 2가지 척도와 상관관계를 조사한 장휘숙(1995)의 연구가 발표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 검사들이 외국의 것을 그대로 번안하여 매우 제한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종전의 검사들이 개발당시 극히 제한된 연구 집단과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전국규모의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는 각 유형의 정체감검사들은 각기 측정하는 특성이 상이하да보니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종단적으로 측정하는데는 매우 미흡한 측면이 많다. 그것은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측정도구로서는 그 개인의 정체감이 발달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또는 초기청소년기부터 자아정체감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척도로

서 볼 수 있는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자아정체감검사들간의 상관관을 조사하고, 각 검사들의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검사하여 종전의 여러 검사들의 목적을 포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체감의 발달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자아정체감의 검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사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뢰도와 타당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분석에서 내적 일치도와 요인분석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내적 일치도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본 검사가 현재 개발단계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한 회 시행을 통하여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정체감검사의 타당도 분석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정체감검사의 경우 단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정체감의 측면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로 요인분석법을 사용하여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4가지 정체감검사의 문항분석 및 예비검사 제작

1.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체감검사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제시된 3가지 검사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검사들 가운데 4가지를 선정하여 이들 문항을 기초로 문항분석을 통하여 예비검사를

<표 1> Marcia가 제시한 지위분류형 검사의 내용

지 위	적응적 측면	병리적 측면
정체감 성취	대부분의 사람이 적응적이고 자아강도, 자기결정적, 자가지향성이 높다.	자기의 직업적 이데올로기적인 관여를 너무 빨리 고정함에 따라 자기의 기본적인 적응성을 제한하는 조속한 정체감 성취현상이 있다.
정체감 유예	민감하고 매우 도덕적이며 유연성이 있다.	불안이 높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며 동요되기 싫다.
정체감 폐쇄	확고하고 잘 관여되어 있으며 협동적이다.	유연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 독선, 독단적이고 규칙과 관습에 동조적이며 기준형에 영향받는다.
정체감 혼미	염려하는 일이 없고 즐거우며 매력적, 독립적, 독보적이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다 정신병리적이고 분열적이다.

제작하였다. 4가지 정체감검사들의 문항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위분류형 검사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혹은 사회학적인 적응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존재에 대한 내재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의미있는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자아정체감의 개념중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의미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정립하고 규정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개인의 직업이나 취미, 결혼, 종교, 도덕관 및 이데올로기 등 기본적인 관여(commitment)의 여러 측면은 자아정체감의 형성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Marcia(1966)는 기존의 자아정체감 연구는 정체감의 성취에 수반되어 발견되는 제반 특징의 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자아정체감의 성취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기준으로 의미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는 위기의 여부와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표현하거나 행동지침으로 삼는 관여의 여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질문지법으로 개발한 사람이

Simmons(1970)와 Adams(1979)이다. Simmons는 자기나름의 실증적 방법론을 개발한 Marcia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은 실시와 채점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판정의 객관성을 결여한 점 등이 결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Marcia의 문장완성법을 개량하여 양자택일형의 24쌍으로 된 자아정체감 성취 지위검사를 제작하였다(<표 1> 참조).

Marcia는 위기와 관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기 이후 계속 당면하는 생활과제로서 직업과 이데올로기(정치, 종교)를 착안하였다. 그 후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나 성역할 등이 추가되고 있다. 성취-유예-폐쇄-혼미는 직선적으로 좋고 나쁜 대립 유형이 아니다. Marcia(1980)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4가지의 자아정체감 지위에는 각각 적응의 측면과 병리적 측면이라고 하는 양면적 특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Adams 등은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에 의한 자아정체감 측정에 관해 실시시간과 채점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피검자를 하나의 정체감 유형에 분류 배치하려는 고정적 분류방식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4가지 정체감 지위 내용을 다루는 측정문항을 각각 6개씩 총 24문항으로 작성해 ‘자아정체감 지위에 대한 객관적 검사’를 작성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

<표 2> 지위분류형 검사 A의 내용

지 위	하위영역 1 (직업)				하위영역 2 (신념 및 가치관)					
정체감 성취	5	27	31	36	1	10	12	13	21	38
정체감 유예	6	26	28	35	2	9	11	20	22	37
정체감 폐쇄	7	25	33	34	3	15	16	17	23	39
정체감 혼미	8	29	30	32	4	14	18	19	24	40

<표 3> 지위분류형 검사 B의 내용

\영역 지 위	직업	종교	정치	삶의 양식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여가활동
성 취	33 49	18 42	8 40	20 60	13 45	15 55	35 51	22 46
탐 색	9 57	26 34	32 48	12 36	5	31 47	11 43	14 54
모 방	17 41	50 58	24	28 44	21 37	39	3 27	38
혼 미	1 25	2 10	56 16	4 52	29 53	7 23	19 59	6 30

지위의 4가지 구분이 너무 경직되고 인위적이라 하여 현재 이행과정에 있는 자를 따로 분류해 ‘정체감 혼미-폐쇄’형과 ‘폐쇄-유예’형 등으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이해될 뿐, 현실적인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유형의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종류를 선정하였다. 지위분류형 정체감검사 A는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의 의도를 많이 살려서 그 내용을 질문지 형태로 바꾸어 직업과 신념가치관, 2가지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작된 것으로 최근 이승국(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검사의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지위분류형 정체감검사 B는 Adams 등(1986)이 Marcia의 정체감 지위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만든 검사(EOMEIS-2)로 최근 송설희(1994)의 우리 문화와 감성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선택하였다(<표 3>참조).

나. 구성요인형 검사

Erikson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 현상학적인 주관적 의식경험을 중요시하였다. 정체성의 감각(sense of identity)이란 것은 자신의 생활사적 연속성(continuity)이나, 자기의 동일성(sameness) 등을 기초로 한 자기확신이고 그 같은 자기가 타인에 의해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자기와 타인 양쪽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믿는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내 몸이 편안한 느낌이다”,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1968, p.183)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아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및 그에 관련되는 감정들을 자아정체감으로 본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지를 작성한 Dignan(1965)은 여대생과 어머니 동일시와의 관계를 분석할 목적으로 Erikson의 저서와 그

<표 4> Dignan의 자아정체감 측정질문지 개요표

하위영역	정 의	문 항 예
자기감각	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
독특성	자기의 개성이나 타인과의 다른 점을 인식한다.	대학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 휩쓸려가는 기분이 든다.
자기수용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자기와 함께 살아간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대로의 내가 좋다.
대인역할 기대	타인이 자신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여러가지 역할을 혼란없이 통합하고 확신을 갖는다.	여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나에게서는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
안정성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법이 별로 변화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여러 사람에 맞도록 행동하는 편이다.
목표지향성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방향을 안다.	나에게는 내 이상을 실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대인관계	타인과 친밀하고 또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여러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즐겁다.

<표 5> 구성요인형 검사의 내용

하위영역	개 요	문 항 분 류											
		공 정 문				부 정 문							
안정성	시간적 경과, 유동적 인간관계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 자기인식	1	2	3	4	31	32	33	34	35			
목표지향성	자기의 인생목표, 행동할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행동선택 능력	6	36	37	38	7	8	9	10				
		39	40										
자기존재의 독특성	자신의 심리, 사회적 제반 특성과 타인과 비교되는 자기속성의 이해	11	12	13	14	42	43	44	45				
		15	41										
대인관계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16	46	47	48	17	18	19	20				
역할인지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49	50										
자기수용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 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함	21	22	23		24	25	51	52				
						53	54	55					
자기주장	사회적 압력, 타인의 기대에 구애없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할 수 있음	26	56	57	58	27	28	29	30				
		59	60										

때까지의 자아정체감 내용을 검토한 후, 그 하위영역으로서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및 대인관계 등 7개를 설정하고 150개 문항을 배정, '예-아니오' 사이에 4단계로 응답하게 하여 총득점을 산출하였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Dignan이 개발한 검사를 기초로 제작된 서봉연(1975)의 검사와 권순명(1993)이 수정한 검사가 활용되었다. 이들 검사

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하위영역 가운데 6가지를 선정하여 문항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다른 하위영역과 문항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다. 발달단계형 검사

<표 6> Erikson의 발달과제와 Rasmussen의 하위영역

Erikson의 발달과제와 위기	Rasmussen의 하위영역
신뢰성 대 불신감	◦ 시간적 전망, ◦ 타인과의 신뢰감, ◦ 좋은 기회의 상실
자율성 대 수치, 의욕	◦ 자기확신, ◦ 자율감, ◦ 수치에 대한 두려움
솔선성 대 무능감, 죄책감	◦ 가족이나 자기의 생육과정에 대한 혐오감, ◦ 집단내에서의 역할실패, ◦ 솔선성
근면성 대 열등감	◦ 성취에 대한 노력, ◦ 경쟁의식의 과잉, ◦ 일(과업)에 대한 집중력
정체감 대 역할혼미	◦ 심리사회적 건전성, ◦ 자아개념과 타인의식의 일치도 ◦ 계획성, 목적의식 및 자기진로에 대한 이해
친밀성 대 고립감	◦ 친밀한 인간관계, ◦ 가까운 사람이나 신념에 대한 거부감 ◦ 인간관계에서의 정서적 고립감

<표 7> 발달단계형 검사의 내용

하위영역	개 요	문 항 분 류							
		공 정 문				분 부 정 문			
신뢰성	◦ 시간적 전망 ◦ 타인과의 신뢰감 ◦ 좋은 기회의 상실	1	2	3	4	26	27	28	29
		5	51	52		30	53	54	55
자율성	◦ 자기확신 ◦ 자율감 ◦ 수치에 대한 두려움	31	32	33	34	6	7	8	9
		35	56	57		10	58	59	60
솔선성	◦ 가족, 자기의 생육과정에 대한 혐오감 ◦ 집단내에서의 역할실패 ◦ 솔선성	11	12	13	14	36	37	38	39
		15	61	62	63	40	64	65	
근면성	◦ 성취에 대한 노력 ◦ 경쟁의식의 과잉 ◦ 일(과업)에 대한 집중력	41	42	43	44	16	17	18	19
		45	66			20	67	68	69
아이덴티티	◦ 심리사회적 건전성 ◦ 자아개념과 타인의식의 일치도 ◦ 계획성, 목적의식, 자기진로에 대한 이해	21	22	23	24	46	47	48	49
		25	71	72	73	50			
		74	75						

Erikson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개체의 '점성적 발달(epigenesis)', 분화의 원리(epigenetic principle)에 근거하여 유아기부터 여러가지 체험이 재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이전의 각 발달 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의 결실로서의 발달적 성취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한 연구로서 Rasmussen(1964)의 연구가 있다. 그는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최초 여섯개 단계 즉 유아기로부터 성인초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발달적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

했는가에 의해 자아정체감을 판단하는 검사(Ego Identity Scale;EIS)를 제작하였는데, 이 검사의 하위영역을 Erikson의 발달단계와 비교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달단계형 검사는 김형태(1989)가 사용한 것으로 Erikson의 8단계 가운데 처음 5개 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단계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하위영역과 문항분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8> 지위분류형 A형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번호 및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9 나 자신에 적당한 인생관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5	-.23	.03	.16
11 자신의 인생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진 때가 있었다.	.55	.03	.03	.01
37 나는 무엇을 할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발발 지나가 버린다.	.52	.38	.03	-.05
40 자신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등을 생각하는 것이 싫다.	.52	.04	.08	-.13
39 남의 말을 곧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언동에 영향받기 쉽다.	.51	.07	.00	.43
20 나는 자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49	.06	.03	.01
22 내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46	.04	.03	.01
29 장래 하고 싶은 직업에 나 스스로가 흔들릴 때가 많다.	.43	-.26	.09	.27
7 나는 장래 희망을 바꿀 생각이 없다.	-.07	.73	.07	-.15
31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나의 포부를 바꾸는 일은 없다고 본다.	-.03	.67	.16	.09
27 전에는 장래 직업에 대해 방황했으나 지금은 확고하다.	-.03	.67	.07	.04
5 장래 가지고 싶은 직업을 지금 바꿀 생각은 없다.	-.23	.65	-.01	.15
25 내가 장래 가지려는 직업은 부모에게 호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02	.58	.26	.06
15 자신의 인생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진 때가 있었다.	.06	.07	.59	-.03
12 장래 일정한 직업을 가질 생각은 없다.	-.01	.07	.56	.05
23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없다.	-.01	.12	.54	-.03
18 남의 말을 곧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언동에 영향받기 쉽다.	-.13	.04	.54	.19
14 나는 자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13	.06	.07	.48
30 내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32	-.01	.02	-.45
24 장래 하고 싶은 직업에 나 스스로가 흔들릴 때가 많다.	.42	.10	.02	-.44
고 유 치	7.39	3.00	2.21	1.75
변량비율	18.5	7.5	5.5	4.4
누가변량비율	18.5	26.0	31.5	35.9

<표 9> 지위분류형 B형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38 나의 여가활동은 부모님의 여가활동과 매우 유사하다.	.65	-.01	.01	.04
39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서 원하시는 이성관만 교제할 것이다.	.57	-.04	.06	-.05
21 부모님은 내가 친구를 고를 때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57	.08	-.04	.08
41 부모님은 이미 나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 결정하였고 나는 따른다.	.57	.08	.08	-.05
17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그대로 선택할 것이다.	.56	.10	.03	-.03
58 부모에게 맞는 종교는 나에게도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54	-.04	-.10	-.27
29 나는 친한 친구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친구가 필요없다.	.52	-.03	-.18	.04
25 나는 내게 적절한 장래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별 관심이 없다.	.51	-.21	.14	.11
24 나는 정치문제에 대해 나의 가족과 비슷하며 가족들에 따라 한다.	.49	-.04	.02	.01
49 나는 많은 생각 끝에 나에게 맞는 장래 직업이 무엇인지 알았다.	-.04	.64	.21	-.04
60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며 그 점에 대해 어떤 생각도 없다.	.06	.59	.29	-.06
57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 없다.	.29	-.58	.08	.15
내게 적절한 장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19	-.57	.11	.10
20 나는 많은 생각 끝에 나에게 이상적인 생활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13	-.53	.21	.21
12 훌륭한 생활방식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03	-.50	.20	-.01
33 장래 직업에 대해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으나 지금은 알고 있다.	-.03	.04	.54	.19
48 아직 내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	.10	.02	.53	-.02
9 적절한 장래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능력있는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	.05	-.19	.53	.02
11 가정생활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다.	.06	.02	.53	-.02
14 나는 나의 취향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09	.06	.48	-.04
43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10	.16	.47	-.12
10 나는 종교에 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종교문제가 그렇게.	.06	-.05	-.13	.76
12 나는 흥미를 끄는 어떠한 종교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진실로 종교에.	.04	-.03	-.01	.75
42 종교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고 나는 현재 나에게 적합한.	.25	.08	-.09	.70
34 나는 현재로서는 종교에 관해 확실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14	-.23	.13	.63
고 유 치	6.75	5.80	3.34	2.38
변량비율	11.2	9.7	5.6	4.0
누가변량비율	11.2	20.9	26.5	30.4

<표 10> 구성요인형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51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63	.06	-.06	.16	.03	.11
53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60	.23	.24	.08	.13	-.02
33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59	-.01	.02	-.01	.03	.06
42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56	.04	.07	-.10	.01	-.04
25 내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은 후회할 것들이 많다.	.54	.17	-.06	-.09	-.04	.06
24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52	.12	-.05	-.03	.15	.21
54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52	.28	.11	.07	.01	.20
55 나는 내 약점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	.52	.08	.19	.09	.32	-.03
35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니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44	.01	.05	.04	.33	.08
32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43	.37	-.16	.01	.21	.18
9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10	.65	.17	.03	.10	-.07
6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11	.62	.23	.18	-.07	-.10
7 하고 싶은 일중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28	.59	-.03	.01	.11	-.08
40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런지 알고 있다.	.03	.56	.01	.09	.06	.20
37 나는 장래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	.03	.53	.29	.12	.09	.10
8 나는 내 장래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싶지 않다.	-.01	.49	.34	-.08	.21	.28
10 나는 꾸준히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31	.46	.04	.07	.11	.33
38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13	.18	.60	.04	.03	.16
47 나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즐겨한다.	-.01	-.05	.54	.20	.34	.10
4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04	.02	.54	.01	.11	.06
26 나는 자기 의견이 분명한 사람을 존경한다.	-.12	.04	.47	.07	.01	.18
5 나는 일단 친구를 사귀면 오랫동안 우정을 지속한다.	.04	.15	.46	.02	-.04	-.14
23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29	.19	.44	.15	-.01	.21
52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36	.21	.41	.11	.10	.12
56 어떤 일이 싫을 때는 분명히 싫다고 말한다.	-.02	.02	.04	.70	.03	.12
57 다른 사람들이 권고해도 내가 싫은 일은 안한다.	-.01	.07	.09	.67	-.09	.12
41 나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하다.	-.02	.07	.14	.59	.03	-.06
58 어른이 말쑤이라도 틀렸다고 생각되면 틀렸다고 말한다.	-.08	-.05	.10	.57	-.02	.09
59 나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05	.15	.22	.52	.29	.11
60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때 내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다.	.03	.16	.20	.51	.24	-.18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21	.32	-.08	.44	.23	.24
18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11	.04	.08	-.04	.74	.19
19 모임에 나가면 가끔씩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18	.11	.11	.12	.67	.22
17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01	.07	-.01	-.01	.67	.25
20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18	.05	.19	.02	.66	.32
45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09	.10	.07	.20	.44	.03
21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다.	.21	-.22	.21	.27	.21	.52
39 나는 계획표를 짜면 대개 그대로 실천하는 편이다.	.15	.13	.04	.16	.08	.48
22 내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4	.53	.03	.01	.10	.47
4 앞으로도 나는 현재의 나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2	.35	.04	-.12	.11	.46
고 유 치	9.65	4.07	2.71	2.52	1.99	1.68
변량비율	16.1	6.8	4.5	4.2	3.3	2.8
누가변량비율	16.1	22.9	27.4	31.6	34.9	37.7

<표 11> 발달단계형 검사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33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65	.09	.13	.14	.13	.12
44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62	.16	.23	.11	.05	.10
34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59	.17	.14	.01	.09	.05
32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55	.13	-.01	.09	.14	.15
52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4	.13	.27	.11	-.05	.06
61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52	.07	.26	.03	.06	.23
35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분명히 주장하는 편이다.	.49	.04	.01	.41	.01	.11
42 나는 내가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8	.24	.17	.15	-.08	.14
41 나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47	.07	.37	.07	-.08	.22
43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47	.12	.22	.02	-.01	.16
45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야 한다.	.46	.08	-.01	.36	.07	.15
72 나는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6	.01	.40	.08	.03	.05
22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46	.30	.07	.02	-.03	.04
21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44	.26	.19	-.01	.02	.07
73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44	.22	.12	-.07	.01	.04
65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6	.57	.21	.22	.03	.23
60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가 않다.	.10	.56	.13	.17	.08	.01
27 이 세상 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2	.51	.23	.21	.07	.02
67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08	.47	.22	.03	.24	.12
30 내가 하는 일 중에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11	.47	.15	.13	.14	.02
58 나는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26	.47	.31	.23	.05	.08
10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03	.46	.02	.10	.20	.13
64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35	.46	.10	.09	-.13	.11
19 나는 계획한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15	.51	.38	.24	-.07	.21
69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14	.50	.39	.25	.02	.12
20 나는 남달리 잘하는 일이 별로 없다.	-.02	.47	.03	.07	.25	-.13
68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09	.47	-.01	.10	-.33	-.11
59 나는 어떤 일에 부딪칠 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다.	.19	.47	.24	.08	-.13	.02
5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16	.46	.27	.08	.09	.11
70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04	.46	.06	-.03	-.29	.14
7 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05	.45	.01	.10	.13	.08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럼을 생각할 때가 많다.	.15	.44	.38	.24	-.07	.05
39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09	.05	.64	.15	-.01	.04
40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다.	.09	.15	.58	.19	.06	.10
37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12	.12	.55	.15	.09	.12
38 나는 낯선 곳이나 새로운 일을 두려워한다.	.12	.29	.55	.12	.03	.01
14 나는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20	.17	.54	-.01	.22	.08
8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21	-.16	.48	.05	.09	.05
48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	.17	.27	.41	.23	.04	-.12
47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08	.15	.40	.05	.03	.10
고 유 치	16.22	4.63	3.06	2.34	1.95	1.48
변량비율	21.6	6.2	4.1	3.1	2.6	1.9
누가변량비율	21.6	27.8	31.9	35.0	37.6	42.2

2. 대상

본 연구에서 제시된 4개 검사의 문항분석을

위해 서울,부산 및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2학년,고등학교 1,2학년, 대학교 전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표 12> 집단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2년	고등 2년	대학 1년	대학 2년	대학 3년	대학 4년	전 체
남	338(46.6)	334(50.3)	322(52.4)	326(48.8)	314(44.5)	290(49.2)	1,924(48.5)
여	388(53.4)	330(49.7)	292(47.6)	342(51.2)	392(55.5)	300(50.8)	2,044(51.5)

* ()안은 %임

집절차는 3개 도시(대구 1,113명, 서울 1,024명, 부산 1,035명)에서 각 도시마다 중학교과 고등학교는 학급을 5개씩을, 대학생은 5개 대학의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체대상은 3,172명이었으나 질문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하다고 판단된 133명을 제외한 3,03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중등학교는 쉬는 시간, 대학생들은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기간은 1995년 6월, 7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3. 검사도구 제작절차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과학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4가지 검사결과는 요인분석법을 사용해 문항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개의 지위분류형 검사는 요인의 수를 4가지로, 구성요인형 검사는 요인의 수를 6가지로, 발달단계형 검사는 요인의 수를 5가지로 지정한 채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다제공치를 초기 공통분 추정치(initial communality)로 삼았으며 varimax 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요인계수가 .4 이상인 문항만을 선정하여 추출된 문항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해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분석하고 또한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추출된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예비검사를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검사의 문항으로 선정된 각 검사의 문항내용과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지위분류형 A형 검사는 20개 문항

(<표 8>참조), 지위분류형 B형 검사는 25개 문항(<표 9>참조), 구성요인형 검사는 40개 문항(<표 10>참조) 그리고 발달단계형 검사는 40개 문항(<표 11>참조)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예비검사는 문항수가 125개로 구성되었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제작

1. 대상

예비검사를 대구,서울,부산,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전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집절차는 4개 도시(대구 1,113명, 서울 1,024명, 부산 997명, 광주 986명)에서 각 도시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급을 5개씩을, 대학생은 4개 대학의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체대상은 4,120명이었으나 질문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하다고 판단된 152명을 제외한 3,968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집단별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 <표 12>이다. 실시기간은 1995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이 실시되었다. 검사의 신뢰도는 정체감의 하위요인별 그리고 전체의 일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검사의 타당도는 문항들의 잠재된 특

<표 13> 지위분류형 A형 검사의 문항번호와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6**	.30**	.31**	.31**	.15**	.27**	.30**	.27**	.25**	.17**	.36**	.31**	.15**	.19**	.37**	.16**
17	18	19	20												
.18**	.22**	.34**	.33**												

** p < .01

<표 14> 지위척도형 B형 검사의 문항번호와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4**	.16**	.48**	.29**	.03	.22**	.25**	.03	.06**	.16**	.10**	.10**	.09**	.24**	.22**	.21**
17	18	19	20	21	22	23	24	25							
.49**	.29**	.18**	.30**	.53**	.27**	.29**	.44**	.39**							

** p < .01

<표 15> 구성요인형 검사의 문항번호와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0	11	12	12	13	14	15	16
.13**	.40**	.49**	.32**	.24**	.57**	.49**	.35**	.48**	.49**	.01	.30**	.48**	.37**	.35**	.28**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9**	.48**	.45**	.50**	.40**	.43**	.57**	.38**	.10**	.23**	.44**	.46**	.29**	.33**	.13**
33	34	35	36	37	38	39	40								
.33**	.48**	.47**	.57**	.54**	.26**	.37**	.44**								

** p < .01

<표 16> 발달단계형 검사의 문항번호와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7**	.35**	.25**	.45**	.30**	.46**	.50**	.51**	.28**	.50**	.32**	.32**	.43**	.46**	.42**	.2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6**	.33**	.50**	.56**	.49**	.48**	.47**	.19**	.32**	.39**	.62**	.46**	.40**	.58**	.35**	.45**
33	34	35	36	37	38	39	40								
.59**	.34**	.53**	.51**	.54**	.50**	.37**	.50**								

** p < .01

성을 알아보고, 이들의 관련성을 계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구성개념 타당도를 구하였다.

점과 상관관계는 <표 13>, <표 14>, <표 15> 및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1%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였다.

신뢰도 검증

결 과

각 척도별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관계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검사별 문항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가지 검사의 검사별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전체 총점에서 각 문항의 기여도가 낮은 것을 삭제하였다. 각 검사별 총

각 문항의 일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Cronbach alpha를 이용하였다. 검사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하위문항을 제외했을 시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하위검사별로 신뢰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17>에 제시된 바와 본 연구에서는 특정문항을 제거시 하위척도별 Alpha 계수가 높은 문항을 제외하여 선정하여 새 검사의 기본문항으로 삼았다.

<표 17> 각 문항별 신뢰도 계수

문항 번호	수정 평균	변량	문항전체 상관	α 계수*	문항 번호	수정 평균	변량	문항전체 상관	α 계수*
55	226.46	1575.59	.49	.95	24	225.59	1572.08	.53	.95
83	226.73	1580.73	.46	.95	12	225.25	1596.42	.32	.95
22	225.69	1578.56	.52	.95	31	225.95	1584.58	.45	.95
16	225.62	1584.45	.46	.95	52	225.89	1564.10	.62	.95
8	226.16	1585.16	.40	.95	82	226.08	1579.56	.45	.95
1	226.50	1576.95	.48	.95	38	226.08	1567.87	.39	.95
61	225.58	1586.90	.41	.95	92	225.51	1594.83	.39	.95
42	225.78	1571.99	.51	.95	58	225.74	1581.79	.52	.95
36	226.46	1573.26	.51	.95	77	225.52	1588.64	.46	.91
39	225.49	1571.71	.57	.95	117	226.70	1578.11	.48	.95
98	226.14	1589.55	.36	.95	120	225.82	1578.22	.52	.95
123	226.36	1591.24	.31	.95	65	225.75	1577.25	.51	.95
114	226.17	1577.91	.44	.95	13	225.84	1563.59	.61	.95
102	225.97	1585.54	.39	.95	122	226.40	1588.87	.37	.95
54	225.60	1584.70	.43	.95	104	226.74	1589.20	.42	.95
34	226.54	1569.93	.50	.95	85	226.33	1575.64	.55	.95
23	225.56	1579.71	.47	.95	60	226.25	1576.49	.51	.95
3	226.27	1565.44	.56	.95	97	226.35	1576.15	.52	.95
19	226.31	1580.62	.45	.95	26	226.53	1579.17	.47	.95
28	226.16	1580.53	.47	.95	17	225.94	1576.47	.52	.95
47	226.27	1580.64	.46	.95	27	225.58	1571.06	.58	.95
59	225.97	1572.33	.51	.95	49	226.10	1589.73	.39	.95
68	225.89	1590.67	.35	.95	115	225.90	1586.70	.43	.95
45	225.34	1594.85	.33	.95	124	225.79	1584.57	.48	.95
64	226.04	1565.54	.58	.95	119	225.71	1581.07	.54	.95
106	226.51	1584.43	.43	.95	73	226.01	1587.04	.43	.95
96	225.12	1598.39	.30	.95	113	226.47	1578.17	.50	.95
75	226.31	1585.11	.35	.95	118	226.28	1567.41	.57	.95
56	226.38	1580.55	.43	.95	88	225.92	1580.50	.48	.95
95	225.31	1593.00	.35	.95	112	226.19	1574.63	.52	.95
103	226.21	1565.63	.54	.95	35	226.11	1579.39	.47	.95
63	225.58	1604.32	.20	.95	15	225.71	1580.87	.46	.95

RELIABILITY COEFFICIENTS, ALPHA = .9525

* 문항제외시 α 계수

<표 18>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

하 위 척 도	α 계수
주체성(10문항)	.8520
자기수용성(12문항)	.8652
미래환상성(8문항)	.8526
목표지향성(10문항)	.8477
주도성(8문항)	.8106
취체성(8문항)	.7964
청체감유예(8문항)	.7418
청체감혼미(8문항)	.4738
전 체	.9525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하위척도 가운데 '정체감혼미'(α 계수=.4738)를 제외한 7개가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정체감 혼미만이 신뢰도가 유일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정체감 혼미 요인을 측정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 따른 변이가 큰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정체감 혼미요인은 연령에 따라서 혼미 상황 및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각 검사별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4개의 검사를 종합하여 제작한 예비 검사의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구성개념을 측정

<표 19> 8개 요인별 부하량 *는 부정적 응답률 높은 점수로 계산한 문항임

문항	요인1	2	3	4	5	6	7	8
I. 주체성								
36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69	.16	.15	.11	.13	.13	.09	.04
23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60	.03	.09	.15	.10	.07	.11	.04
47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60	.05	.05	.10	.26	-.03	.26	.06
68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60	.05	.19	.09	.32	.05	.05	.13
73 나는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57	.15	.08	.29	-.11	.15	-.09	.04
106 나는 내 모습 이데올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5	.30	.13	.06	.13	.03	-.10	.07
123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54	.07	.34	.25	.00	.08	-.00	.03
38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고야 만다	.53	.05	.10	.38	.02	.10	-.04	.03
108 나는 내가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2	.36	.16	.01	-.05	.16	-.06	.08
84 나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49	.03	.11	-.01	.32	-.01	.23	-.00
II. 자기수용성								
8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11	.62	.11	.11	.12	.17	.25	.10
114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13	.59	.11	.26	.15	.14	-.01	.12
60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32	.57	.11	-.02	.01	.04	.05	.09
28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05	.55	.02	.11	.11	.10	.29	.12
54 이 세상 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01	.53	.06	.14	.15	.17	.15	-.01
3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18	.51	.19	.17	.17	.22	.20	.01
8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15	.51	.25	.21	.33	.09	.17	-.07
112 나는 친한 친구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친구가 필요없다.	.17	.51	.15	.12	.36	.06	.26	-.04
20 내가 하는 일중에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06	.48	.17	.35	.23	.16	.11	.01
70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04	.45	.07	.23	.10	.29	-.04	.10
111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17	.40	.21	.24	.18	.01	-.06	.28
44 나는 친한 친구가 없다. 군중속에서 방황하길 좋아한다	-.01	.36	-.01	.08	-.03	.10	.34	.20
III. 미래확신성								
17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01	.14	.70	.15	.08	.09	.17	.15
45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30	.08	.68	-.03	.11	.03	.03	.08
75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	.08	.26	.61	.08	.25	.12	.15	.13
119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런지 알고 있다	.21	-.02	.61	.18	.03	.09	-.07	.14
83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39	.08	.59	.10	-.01	.09	.05	.00
95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없다	.02	.15	.57	.20	.20	.08	.16	.18
34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37	.08	.53	.13	.10	-.03	.11	.20
8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34	.17	.52	-.00	.08	.01	.12	.05
IV. 목표지향성								
27 시작한 때는 열성을 보이니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12	.10	.02	.68	.16	.11	-.05	.17
65 나는 꾸준히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20	.07	.12	.64	.10	.01	.19	.11
104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4	.09	.05	.63	.16	.11	.07	.17
96 나는 계획한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14	.20	.04	.61	.09	.17	.03	.11
64 나는 반동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15	.25	.13	.58	.13	.11	.14	-.14
31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12	.18	.13	.45	.09	.09	.42	-.17
98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08	.18	.22	.43	.15	.17	.23	-.21
49 나는 남달리 잘하는 일이 별로 없다	.13	.30	.25	.42	.17	.15	.08	.08
18 하고 싶은 일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02	.16	.37	.41	.05	.09	.03	.26
33 나는 무엇을 할려고 해도 의욕도 없고 발발 지나간다	.18	.23	.19	.39	.13	.17	.14	.26
V. 주도성								
1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12	.26	.09	.07	.60	.11	.14	.09
1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는 대로 잘 이끌린다	.12	.05	.10	.17	.54	.20	.03	.13
61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08	.26	.06	.08	.53	.17	.25	.04
42 난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07	.10	.10	.23	.52	.15	.08	.18
56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19	.13	.12	.10	.49	.39	.12	.04
3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15	.20	.08	.30	.48	.10	-.14	.19
124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12	.21	.15	.15	.46	.09	.32	-.04
88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14	.12	.12	.11	.42	.07	-.03	.37

하였다. 여기에서는 고유치가 1이상인 경우만을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을 고

려하여 각 요인의 타당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의 Alpha

표 19 계속

VI. 친밀성

58	모임에 나가면 가끔씩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07	.18	.07	.09	.03	.70	.09	.06
26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01	.13	.01	.08	-.00	.68	.08	.01
12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00	.20	.10	.09	-.03	.67	.08	.05
6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09	.09	.14	.17	.33	.58	.07	-.02
77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다	.10	.05	.07	.23	.32	.55	-.01	.08
37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13	.14	-.00	.01	.20	.52	.07	.01
117	나는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끼거이 맡는다	.40	-.03	.07	.04	.15	.49	-.07	.11
39	나는 낯선 곳이나 새로운 일을 두려워한다	.09	.14	.09	.21	.33	.49	.15	-.01

VII. 정체감 유예

122	나는 나의 부모님께서 원하는 이성까만 교제할 것이다	-.06	-.05	.03	.00	.16	.03	.59	-.04
97	장래 일정한 직업을 가질 생각은 없다	.09	.17	.01	.01	-.05	.07	.59	.11
13	자신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싫다	.06	.20	.05	.09	-.02	.03	.56	.16
120	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05	.00	.08	.14	.03	.05	.52	.26
59	부모에게 맞는 종교는 나에게도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05	.03	-.03	-.00	.21	-.02	.48	.24
19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며 그 전에 대해 어떤 생각도 없다	.07	.22	.25	.26	.13	.04	.48	.09
118	내게 적절한 장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01	.18	.30	.02	.16	.08	.46	.04
24	나는 내 장래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싶지 않다	-.01	.19	.31	.05	-.06	.19	.45	.16

VIII. 정체감 혼미

115	나는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이란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07	.05	.13	.11	.12	.07	.12	.59
22	나 자신에 적당한 인생관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07	.10	.32	.08	.16	.03	.08	.58
102	아직 내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	.15	.05	.32	.21	.17	.09	.17	.48
52	자신의 인생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진 때가 있었다	.11	.16	.14	.01	.04	.01	.25	.47
16	나는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20	.10	.11	.02	.05	.04	.18	.47
103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12	.01	.10	.05	.14	.03	.02	.46
1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05	.04	.10	.13	.09	.21	.41	.44
55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05	.21	.11	.01	.08	.18	.04	.43

고 유 치	16.79	3.37	2.95	2.11	2.03	1.87	1.65	1.36
변량비율	24.7	5.0	4.4	3.1	3.0	2.8	2.4	2.0
누가변량비율	24.7	29.7	34.0	37.1	40.1	42.9	45.3	47.3

값을 저하시키는 문항을 선별적으로 제거한 후, 신뢰도를 결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을 기초로 재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갯수를 결정하였다. 요인의 갯수를 조절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8개군으로 분석하였다(<표 19>참조).

타당도 검증

1. 내용타당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4가지 검사의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던 각 문항을 하위영역별 하위구성성목들을 선정하여 각 문항에 대해 연구자 및 대학원에서 자아정체감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이 문항을 내용분석하였다. 이 때 기준은

“문항내용이 자아정체감을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가?”였다. 검증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4명의 평정자들간의 문항에 있어서의 일치도를 75%인 경우만을 선정하였다.

2. 구성개념 타당도

구성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탐색적 요인분석 적용한 다음,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방법인 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일부의 요인들이 같은 하위 요인별로 적재되지 않고 다른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경우가 나타나서 선명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각 요인별 내부분항들간의 상관계수

<표 20> 개발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하위영역 및 소속문항번호

<p>(1) 주체성</p> <p>① 능력감 즉,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p> <p>② 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p> <p>1 9 17 25 33 41 49 57</p>	<p>(2) 자기수용성</p> <p>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p> <p>②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p> <p>2 10 18 26 34 42 50 58</p>
<p>(3) 미래확신성</p> <p>① 자신의 장래 할 일(직업)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p> <p>②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p> <p>3 11 19 27 35 43 51 59</p>	<p>(4) 목표지향성</p> <p>①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가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고 있는가?</p> <p>②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p> <p>4 12 20 28 36 44 52 60</p>
<p>(5) 주도성</p> <p>①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가?</p> <p>②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p> <p>5 13 21 29 37 45 53 61</p>	<p>(6) 친밀성</p> <p>①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p> <p>②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출정도</p> <p>6 14 22 30 38 46 54 62</p>
<p>(7) 정체감 유예</p> <p>①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릴 적 학습한 것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p> <p>7 15 23 31 39 47 55 63</p>	<p>(8) 정체감 혼미</p> <p>① 정체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p> <p>8 16 24 32 40 48 56 64</p>

(intra item correlation coefficient)가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여 제거한 후, 반복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요인에 대한 명명과 문항수 조절

본 연구에서는 <표 19>에 나타나 있는 요인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8개 하위영역의 문항수를 8개로 재정리하여 총문항수가 64개로 구성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개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이 8개 내지 10개이기 때문에 8개로 선정하였다. 새로이 명명된 8가지 하위영역은 다음 <표 20>에 제시되어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표 19>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보다 포괄적이고 세련된 정체감검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8개의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총6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정체감검사를 구성할 수 있었다(<부록>참조).

8개의 하위영역을 분석해보면 예비검사에서 제시된 125개 문항들이 각 검사간에 거의 중복되어 나타났는데 이것은 4개의 검사들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출된 8개 하위영역들 거의 대개가 구성요인형 검사와 발달단계형 검사의

문항들인 것을 보면 이 2가지 유형의 정체감 검사가 다른 검사들에 비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위 분류형 검사와 구성요인형 검사는 Marcia가 이미 지정한 바와같이 정체감 지위를 가정하여 정체감을 측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위분류형 검사와 구성요인형 검사는 하위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직업,신념 또는 가치관 등에서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구성요인형 검사는 그 하위영역이 직업, 종교,정치,삶의 양식,우정,이성교제, 성역할 및 여가활동 등의 과제 특징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이고 철학적이며 삶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기개념인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종래의 검사들이 그 유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는 정체감의 모습이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 비해 각 유형의 검사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와 각 검사의 유형별로 나타난 특성을 통합한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종래의 검사들이 갖고 있던 측정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개발된 다면적인 자아정체감검사는 종래의 자아정체감검사들이 개인의 정체감의 발달경향을 연구하는데 부딪혔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모습이 개인의 각 발달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감의 발달을 연구하는데는 종래의 검사들로서는 전체적인 자아정체감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종래의 자아정체감검사로서는 광범위한 발달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자아정체감을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느 특정 발달단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

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발달경향에 대한 연구들(서봉연,1979; 심계전,1985 등)조차도 횡단적인 연구에 만족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최근에 수행된 우리나라 청소년 정체감 발달경향에 대한 한 연구(박아청,1996)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은 본래 Erikson이 제시한 자아정체감의 개념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전기,중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감 성취 또는 획득은 인생의 후기에서도 가능하다는 Erikson의 주장을 고려하면 성인 후기나 인생단계의 후기의 자아정체감의 형성 또는 완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근래 대두되고 있는 평생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이 방면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권순명(1993).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귀인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 김순화(1983).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양식의 지각과 자아정체 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김영복(1983).청년기 자아정체성과 사회선호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 김영선(1986).자아정체성과 동조성의 발달 및 성차와 그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 김형태(1989).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
- 남덕자(1975).어머니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족성원내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문성숙(1991).사회계층과 자아 정체감과 의 관

- 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
- 박미영(1990). 중학생의 자기표출훈련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 박선기(1977). 자아정체감과 장래전망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승운(1990). 여고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 박아청(1984a).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 정민사.
- 박아청(1984b). 자아-아이덴티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연구, 제22권 제2호, 83-98.
- 박아청(1985). 한국과 일본대학의 자아-아이덴티티에 관한 비교연구. 지도상담, 제10집,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3-48.
- 박아청(1990, 1993). 아이덴티티의 세계(제2판). 서울: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4). 자아정체감 지위와 친밀성 지위간의 정준상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7권 제1호, 64-76.
- 박아청(1994c). Marcia의 아이덴티티 지위면접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3권 제1호, 167-185.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1996). 한국청소년의 정체감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9권 제2호, 68-78.
- 박영신(198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종교성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 박준수(1987). 자아정체감과 적응력 및 자아실현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 배제현(1984). 자아-아이덴티티와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 백선옥(1974). 부모와의 동일화가 자아동일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
- 서봉연(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2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14-138.
- 서봉연(1988). 한국 청년들의 Identity Crisis에 관한 분석적 연구. 심리학의 연구문제, 3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29-160.
-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남대.
- 신태수(1981). 군대조직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생활에의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
- 심계전(1985). 초기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
- 양병한 등(1983). 과목실적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계명, 15호, 계명대학교, 138-152.
- 윤명숙(1989).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
- 윤종숙(1989). 관광지 고교생의 도덕성 및 자아정체감이 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 이경숙(1983).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이경혜(1991). 자아정체감과 친밀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 이규희(1990). 자기주장 훈련이 우울성향학생의 자아정체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 이승국(1996).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 이정란(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
- 장휘숙(1995). 세가지 자아정체감 척도에 관한 비교. 중원 황용연박사 정년기념논총 현대

- 사회와 청소년지도**, 서울:배영사, 165-186.
- 전광주(1987). 자기일관성과 생활변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 정인숙(1979). 청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응과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
- 조미란(1989). 중·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
- 조성덕(1987). 자아정체감 성장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 조수연(1982). 고등학교 교육의 분화체제가 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차영희(198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 최인숙(1988).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 한상철(1986). 청년기에 있어서 자아-아이덴티티의 발달과정.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
- 황윤정(1987). 청소년 정체감의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 Adams, G.R. & Steven A. F. (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Cross-Sequenci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74-583.
- Bourne, E. (1978). The state of research of ego identity: A review and appraisal. Part 1.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223-251.
- Dignan, M.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 476-483.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Norton.
- Grotevant, H.D., Thorbeck, W., & Meyer, M.L. (1982). An extension of Marcia's identity status interview into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1, 33-47.
- Marcia, J.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 551-558.
- Marcia, J.E. et al. (1993). *Ego Identity*. New York: Springer-Verlag.
- Rasmussen, J.E. (1964). Relationship among ego to psychosocial affect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15, 515-525.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Ah-Chung Park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multidimensional ego-identity scales, encompassing personal, social, and occupational aspects. For this purpose, the initial item pool was generated from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nd the scales used in Korea were analyzed into three types: identity status type, component factor type, and identity development type. The participants were 3,968 students in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colleges in four cities in Korea: Seoul, Pusan, Taegu, and Kwangju. The scales used in this study were multidimensional scales of four tests for each of the types for ego-identity. The scales including 125 initial items consisted of the three typ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ach scale were tested b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 alpha for each was found significant. The final version of the multidimensional ego-identity scale was composed of personal, social, occupational, and religious aspects; the initial pool items were narrowed down to eight factors (or identity domains), consisting of sixty-four items. The eight factors were: initiativeness, self-receptiveness, confirmativeness for future, goal orientedness, subjectivity, intimacy, identity-moratorium, and identity confusion. Finally, the present findings we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each item type,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부록〉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

* 아래의 문장 중 현재 당신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의 번호에 까맣게 칠 해 주십시오.

(예) 나는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매해 우당 많된 이다	조해 금당 된 다	어아 느니 쪽다 도	별되 로지 해않 는 다	전되 혀지 해않 는 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4.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6. 모임에 나가면 가끔씩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 - - - -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이성과만 교제할 것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치관이라든가 신념이란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 - - - -	①	②	③	④	⑤
9.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꾸준히 한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린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5. 장래 일정한 직업을 가질 생각은 없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0. 한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1.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3. 자신이 '살아가는 중요한 것' 등을 생각한 적이 없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4. 아직 내 자신의 인생관에 대한 자세가 정해져 있지 않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어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게 될런지 알고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혼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0.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2. 자신의 인생관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진 때가 있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4. 이 세상일은 결국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빈둥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송하는 편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기 보다는 따라가는 편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38.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많다 - - -	①	②	③	④	⑤
39. 부모에게 맞는 종교는 나에게도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 - -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무엇을 할려고 해도 의욕도 없고 빌빌 지나가 버린다 -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지 않다 - - - - -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장래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가 없다 - - -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 - - -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 - - - -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며 그 점에 대해 어떤 생각도 없다 -	①	②	③	④	⑤
*48.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 - - - -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 - -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어렵거나 힘든 일은 피하는 편이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3.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린다 - - -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을 기꺼이 맡는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5. 내게 적절한 장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	①	②	③	④	⑤
56. 때때로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7.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고야 만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8. 나는 근본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59.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 - - - -	①	②	③	④	⑤
60. 나는 남달리 잘하는 일이 별로 없다 - - - - -	①	②	③	④	⑤
61.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언동에 영향받기 쉽다 - -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낯선 곳이나 새로운 일을 두려워한다 - - - - -	①	②	③	④	⑤
*63. 나는 내 장래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다 - - -	①	②	③	④	⑤
64.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 - - -	①	②	③	④	⑤